

대구시, 자율주행 기술개발 돕는다… 4년간 146억 투입

산자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국비 99억 확보… 시비 47억 추가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집중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과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4년간 국비 총 99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사업'은 대구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인프라(158km 실증도로, 자율주행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99억 원과 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비 47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46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경북지역 본부가 주관해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지원센터' 구축하고 자율주행 부품·서비스의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검증·분석을 위한 핵심장비 4종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센터구축과 장비구축에 대부

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의 산업기반 구축 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기업 지원 비중이 사업비의 50% 이상 차지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업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도로 기반 시험평가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킹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자율주행 부품과 서비스의 실도로 검증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운백대구시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ski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경남도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2025년 경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 환경, 복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한은 내달 13일까지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봉화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봉화군이 오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7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건 의료 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에 활용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건강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영양군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미당' 성료

경북 영양군 일원에서 열린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미당'이 지난 11일 폐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를 함께 이겨내고 지역민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기존 '영양산나물축제'를 대신해 치유와 공감, 나눔 중심으로 기획됐다.

축제장은 찾은 방문객은 11만여명, 경제 유발 효과는 약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군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산불 피해 주제관과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 해삼 20만 마리 방류

전남 신안군은 13일 흑산도 등 청정해역 8개 지선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g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이다.

군은 오는 5월 말 흑산해역에 전복 19만 마리와 지도 선도갯벌에 참꼬막 6만 마리를 추가 방류하고, 6월 초순에는 해삼 씨뿌림사업 일환으로 해삼 서식기반 조성이 완료된 흑산 예리1구 등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4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신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17일 '부산가족축제' 개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서 진행 '가족을 위한 놀이 체험의 장' 기획

부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제19회 부산가족축제'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며 부산의 모든 가족을 위한 놀이 체험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5월의 오늘, 온 가족은 빛나!'를 주제로 진행되며 부산의 가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 주최,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구·군 12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린다.

행사는 무대행사와 가족체험 마당, 가족전시 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무대에서는 사하구가족센터 '꿈꾸는 아오자이 무용단'의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과 동구가족센터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의 부산찬가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또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식도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같이평등, 함께돌봄, 모두포용 3개 마당에서 총 30개가



부산가족축제 포스터

/부산시

운영된다.

다솜관 다솜갤러리에서는 '우리 가족은 빛나'를 주제로 '우렁 소녀 발차기' 황선에 작가와의 북토크와 '우리 가족은 특별해' 가족 그림전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족이 행복해야 배움이 신나고, 일이 즐겁고, 부산이 행복하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청도군·상주시 등 41억 사업비 확보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響ALL來)'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는 청도군과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각 14억원(청도군)과 27억원(상주시) 등 4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위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5개 분야에 대한 공모가 진행돼 곳당 최대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경북도는 두지역살

이 분야에서 청도군의 '054스페이스 on 스테이 청도' 사업과, 로컬벤처분야에서 상주시의 '상상주도 생활인구형 로컬(벤처) 창업지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17억원(청도 7억원, 상주 10억원)을 확보했다.

두지역살이 분야의 청도군 '054스페이스 on 스테이 청도'는 체류 플랫폼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비어있는(0) 5일장의 4일을 채운다'는 뜻으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류·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3개층으로 구성된다

상주시의 '상상주도 로컬벤처 상주올래'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7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3억원, 민자 4억원)을 투자해 로컬벤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로컬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및 공유오피스 공간과 단기 거주 공간 조성,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첨단화 추진

마산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선정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산단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며 총사업비 297억원 중 국비 252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부품 자율제조 공정 개선, 미래형 자동차 핵심융합부품 기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시

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미래 첨단 자동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총 33개로 스마트 그린산단 5개, 매뉴팩 사업 7개, 특화사업 21개로 구성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사전 컨설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진군, '울진금강송' FAO 현장실사 준비

울진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Ul-Jin Pinetree Agroforestry System)'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FAO 현장실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실사는 등재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단계로 평가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현장 실사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GIAHS 과학자문그룹(SAG) 소속의 경제·환경 인류학자 캐서린 터커(Catherine Tucker) 위원이 실사를 맡는다.

터커 위원은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과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전곡

리 화전민 생가터, 소광리 농가 및 산채 재배 현장, 북면 두전리 주막촌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실사 과정에서 붓도랑과 한봉 같은 산지농업의 전통 기법과 금강소나무를 활용한 생활 도구, 송이산 가꾸기와 보부상 문화, 불영사 전통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울진군은 그동안 다수의 자문회의와 보완 작업을 거쳐 현장실사에 대비해 왔다. 실사 마지막 일정으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 계승과 공동체 협력의 실천 사례도 소개될 계획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